

오미크론 감염 환자 광주서 국내 첫 사망

요양병원서 확진 90대 2명
“오미크론, 델타보다 위험할 수도”
당국, 방역 전략 변형 검토 중

광주에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 환자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행에 대비한 방역 전략 변형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같은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7일과 29일 숨진 90대 2명 모두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주 남구 한 요양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27일 전남대 병원, 같은 달 29일 빛고를 전남대병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와 관련해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으로 확진된 첫 사망사례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라면서 “사망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도가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었으며, 사망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였으며, 고인 중 한명은 위암을, 나머지 한명은 고혈압과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1318명으로, 이중 122명이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평

를 진행하고 있다. 손영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영향으로 방역 전략에 일부 변형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다. 오미크론 전파력의 강도, 위중증-치명률의 영향, 예방접종 효과 등을 추가 분석하고 논의하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어떤 전략을 병행할 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위중증이 절반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감염 규모가 배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같아진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 속도는 2~3배까지 빠르고 중증화·치명률은 30~50% 수준이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보다 치명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감염 규모는 2~3배 커지고 사망자도 더 나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에선 이날도 오미크론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학교 등 밀집집단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광주에선 모두 75명이 신규 확진 됐는데, 서구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 확진자 10명이 추가됐다. 또 광산구 초등학교 관련(4명), 광산구 유치원 관련(9명) 등 집단 감염 여파가 지속됐다. 또 다른 광산구 초등학교 2곳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14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다. 서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 2명이 나와 660명이 전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지역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62명으로 파악됐으며, 위중 환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이날 오후 2시까지 24명이 신규 확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위기 극복 원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적대와 분열 아닌 통합의 선거 되기를”

문 대통령 2022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오는 3월 대선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은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的主인인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

여해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가였다”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민통합을 최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데 이어, 다가오는 대선 역시 ‘통합’을 핵심 가치로 치러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완전한 일상 회복 등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대한 투입과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건희 컬렉션’ 10월 광주 온다

‘이건희 컬렉션, 광주에서 만나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작품 중 일부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번 건희 컬렉션 지방 순회전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4월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1488점 가운데 60여점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을 2개월여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이상범·변관식·김환기·박수근·이중섭·장욱진·유

지방 순회전 광주서 첫 출발
시립미술관·국립광주박물관
박수근 등 작품 2개월간 전시

영국 등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 40여명의 작품을 선보이며 구체적인 작가별 전시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립광주박물관 역시 같은 기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작품 중 일부를 전시하는 순회전을 열 예정으로 전시작 등에 대해 조율중이다.

관심은 순회전에서 선보일 작품의 면면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중앙박물관에 전시된 화제작

들 중 어떤 작품이 포함될지, 또 새롭게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지난해 7월21일 개막, 오는 3월 1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MMCA 이견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에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활동한 대표작가 34명의 작품 50여 점이 나왔다. 김환기의 대작 ‘여인들과 향아리’ (281×568cm)를 비롯해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들’ 등이 대표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통해 총 2만1693점의 기증작 중 45건 77점을 공개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동보살삼존입상’,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등 화제작이 즐비했고, 전시작 중에는 국보 12건, 보물 16건이 포함됐다.

‘이견희 컬렉션’의 파급력은 지난해 입증됐다. 중앙박물관 전시의 경우 무료 관람임에도 압도적 등장했고, 컬렉션의 일부를 기증받았던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 전시에도 미술 애호가 뿐 아니라 그림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져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만들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김환기·이중섭·오지호·이응노·임직순 등 5명 작가 작품 30점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유산-이견희 컬렉션’을, 전남도립미술관은 김환기·전경자·오지호·임직순·유영국·박대성·김은호·유강열 등 8명, 19점을 공개한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전’을 개최했다.

한편 기증 1주년이 되는 오는 4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이견희 컬렉션의 전모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갑’이 된 배달업체... 자영업자 속탄다 ▶6면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 동화·시 ▶16·17면

굿모닝 예향 - 다양해지는 기부문화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AMSUNG

더 나은 미래로
모두가 꿈을 향해
성큼 나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